

Original Article

한의학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KAS2022 인증평가 성찰 : D 한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 중심으로

진명호¹, 김선경², 김훈³

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²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³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Reflection on KAS2022 Accreditation Evalua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Focusing on Self-Evaluation Committee Members of D College of Korean Medicine

Myung Ho Jin¹, Seon-Kyoung Kim², Hoon Kim³

¹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Busan, Republic of Korea, ²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Busan, Republic of Korea, ³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Received: December 24, 2024
Revised: December 30, 2024
Accepted: December 30, 2024

Equally contributed First authors:
Myung Ho Jin and Seon-Kyoung Kim

Corresponding Author:
Hoon Kim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52-57, Yangjeong-ro, Busanjin-
gu, Busan 47227, Republic of
Korea
E-mail : hkim@deu.ac.kr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a survey on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process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t D University of Korean Medicine. The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KAS2022 evaluation, gather data for improving Korean medicine education quality, and identify educati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9 self-evaluation committee members, including professors from basic sciences, clinical sciences, and medical education at D College of Korean Medicine. The survey covered various aspects of the accreditation process, including perceptions, preparation, understanding of standards, opinions on criteria, views on student growth, and satisfaction. Professors from different fields analyzed the results, drawing conclusions through further discussions.

Results: Results showed that while professo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accreditation, they expressed concerns about its implementation challenges, including workload, effectiveness, and lack of support. Difficulties were noted in areas such as curriculum design, student assessment, and resource allocation.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study concludes that future accreditation processes should focus on simplifying evaluation content, providing appropriate faculty support, and ensuring that accreditation directly contributes to improving educational quality and student competencies.

Keywords: Korean Medicine, Accreditation, Quality Improvement, Competency-based Education, Self-Evaluation



서론

의학 분야의 발전은 국민 건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잘 교육된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건강 인프라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1,2}.

한의학교육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로, 교육에 대한 초점은 한의과대학 내에서 변화와 혁신의 주요 원동력으로 부상했다. 첫 번째 인증 기준 주기가 한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면, 두 번째 주기는 역량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³. 그리고 KAS2022에서는 이러한 역량중심 설계가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성찰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향후 자체평가 진행 시 개선해나가야 할 점을 제언한다.

연구 도구 및 방법

1. 연구 배경

이 연구는 D 한의과대학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성찰을 목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 목적은 D 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진행된 KAS2022 평가인증의 타당도를 점검하고,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평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 전반적인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 평가준비에 도움을 주고, 한의과대학 구성원들의 교육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하여 평가의 질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한의과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설문대상 및 분석방법

설문은 D 대학교 한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 교수들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16 명의 교수와 자문 및 전체적인 검토를 담당할 3 명의 교수에게 인증평가 성찰 설문을 요청하였다.

문항은 기초조사,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준비, 평가인증 기준과 평가보고서 작성의 이해,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의견, 학생들의 실제적인 성장에 관한 의견, 자체평가위원 위촉, 구성, 활동에 대한 의견, 평가인증 인력의 직무에 대한 인식, 만족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논문

을 참조하여 설계하였고², 평가인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들은 대부분 중간점이 없는 리커트 6 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특히, 평가기준과 평가보고서 작성의 이해에서는 자체평가 준비 시, 담당할 부분만 응답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이해도와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준비 항목과 마찬가지로 중간점이 없는 리커트 6 점 척도로 (매우 어려움 1, 어려움 2, 약간 어려움 3, 약간 쉬움 4, 쉬움 5, 매우 쉬움 6)으로 제시하여 5 점 척도보다 더 세분화하여 의견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부족한 부분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결과는 기초교수, 임상교수, 의학교육학교수가 각각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공유 및 종합하였고, 이 후 3 차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시사점과 결론을 도출하여 향후 인증평가 개선 계획의 주안점을 찾았다.

결과

1. 기초조사

가. 직렬 및 근무 경력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은 총 19 명으로 기초교수 8 명(42%), 임상교수 11 명(58%)이었다. 근무 경력은 5 년 미만 6 명(32%), 5~9 년 1 명(5%), 10~14 년 5 명(26%), 15~19 년 3 명(16%), 20 년 이상 4 명(21%)이었다.

나. 자체평가위원 평가인증 참여

평가인증 참여 횟수는 1 회, 2~3 회, 4 회 이상이 각각 6 명(32%)이었고, 1 명(5%)은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참여한 인증평가의 기준(중복)은 1 주기 5 명(17%), 2 주기 8 명(27%), KAS2022 15 명(50%), 없음이 2 명(7%)로 KAS2022에 참여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과거 담당 절차를 묻는 질문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참여/작성'이 17 명(74%)로 가장 많았고, '타 학교 방문평가 참여/지원', '모니터링 평가연구보고서 참여/작성', '참여한 적이 없음'이 각각 2 명(9%)이었다.

2.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준비

가. 평가인증의 필요성 인지

교수진의 평가인증의 필요성 인지는 6 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4.67(표준편차 1.00)을 기록하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평가인증 필요성 인지는 평균 2.83(표준편차 1.21)으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Table 1).

나. 인증평가 준비

인증평가 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 준비가 9 명(50%)로

Table 1.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Faculty's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0 (0%)	0 (0%)	2 (11%)	7 (39%)	4 (22%)	5 (28%)
Students'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3 (17%)	4 (22%)	6 (33%)	3 (17%)	2 (11%)	0 (0%)

가장 많았고, 2년 전 4명(22%), 1년전 3명(17%) 순이었다. 준비기간이 아니더라도 담당 영역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에 6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4.61(표준편차 1.06)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Table 2).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한평원 기준에 대한 정확한 교육 필요, 평가인증 기준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 불필요한 증빙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 실질적으로 학생 교육과 역량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러움, 서술할 항목이 너무 많음, 본부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분과별 정기모임 필요 등의 답변이 있었다.

3. 평가인증기준과 평가보고서 작성의 이해 (1~9 영역)

1 영역(사명과 성과)에서는 평가인증 기준이 대체적으로 쉽다는 의견이 많았고, 2 영역(교육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과정 운영(P.2.1.1.), 임상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외부 실습 과정 운영(P.2.6.1.)에서는 어려움을 느꼈다.

3 영역(학생평가)은 약간 어렵거나 약간 쉽다는 의견이 골고루 있었다.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고, 교육성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실시(P.3.2.1)에 가장 많이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4 영역(학생)에서는 주된 의견이 약간 어려움이었는데, 학생 학업상담 체계를 운영(P.4.1.1.)과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시행(A.4.1.1.)하는 것을 힘들게 느꼈다.

5 영역(교수)에서는 어려움~쉬움(척도 2~5) 사이에 의견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는데, 특히, 교수 채용 정책에 업적기준을 두는 것(P.5.1.1.)과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 균

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P.5.2.1.)을 어렵게 느꼈고, 교수가 전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정책 확보, 관련 활동지원(P.5.2.2.)이 그 뒤를 이었다.

6 영역(교육자원)에서는 매우 어려움~쉬움(척도 1~5)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학생 복지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리하는 것(P.6.1.2.)을 매우 어려워했고, 다음으로는 적절한 임상실습을 위해 학생참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P.6.2.3.)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는 적절한 임상실습을 위해 충분한 수의 필수환자군을 확보(P.6.2.1.)하는데도 약간 어려움을 가졌다.

7 영역(교육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어려움~약간 어려움에 응답이 모두 몰려 있었다.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는 것(P.7.1.1.),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것(P.7.3.1.)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졸업생의 수행능력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A.7.3.1.)에 어려움을 느꼈다.

8 영역(대학운영체계)에서는 매우 어려움부터 매우 쉬움까지 전 척도에 걸쳐서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특히, 교육전용 예산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정의 책임과 권한 명시(P.8.3.1.)와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자원을 배분하고 교육과정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P.8.3.1.)하는 부분에서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 외에도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포함하여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와 협력사업 진행(A.8.5.1.)에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9 영역(지속적 개선)에서는 직전 평가 인증에서 받은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P.9.0.1.)하는 것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P.9.0.2.)해야 하는 두 가지 평가요소 모두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Table 2. Opinions on the Preparation Period for Accreditation Evaluation.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What Do You Think About Actively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Activities and Showing Interest in Your Assigned Area of Education, Even Outside the Preparation Period?	0 (0%)	0 (0%)	4 (22%)	3 (17%)	7 (39%)	4 (22%)

Table 3.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Please Indicate the Degree to Which Practical Educational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Evaluation Areas You Are Responsible For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Area 1 - Mission and Outcomes				1 (50%)	1 (50%)	
Area 2 - Educational Program				2 (40%)	2 (40%)	1 (20%)
Area 3 - Student Assessment		1 (33%)	1 (33%)	1 (33%)		
Area 4 - Students		1 (33%)	1 (33%)	1 (33%)		
Area 5 - Faculty		2 (50%)	1 (25%)	1 (25%)		
Area 6 - Educational Resources		1 (25%)		1 (25%)	2 (50%)	
Area 7 - Educational Program Evaluation					1 (100%)	
Area 8 - University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1 (25%)	1 (25%)	2 (50%)		
Area 9 - Continuous Improvement				1 (50%)	1 (50%)	

4.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의견

평가인증 기준에 관하여 실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각자가 맡은 영역에 표기하게 하였을 때, 6 점 리커트 척도로 1 영역에서는 평균 4.5(표준편차 0.5), 2 영역에서는 평균 4.8(표준편차 0.74)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3 영역에서는 평균 3(표준편차 0.82), 4 영역에서는 평균 3(표준편차 0.82), 5 영역에서는 평균 2.75(표준편차 0.83)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다. 6 영역에서는 평균 4(표준편차 1.22), 7 영역에서는 평균 5(표준편차 0)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8 영역에서는 평균 3.25(표준편차 0.83)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9 영역에서는 평균 4.5(표준편차 0.5)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Table 3).

D 학교 한의과대학은 평가인증의 기준에 따라 시대적 요구를 교육현장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4.4(표준편차 0.71)로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4).

그 이유로는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임, 평가인증 기준에 맞추어 교육이 변화되고 있음, 임상실습에 평가인증 기준을 맞춰 다양한 실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도입하였음 등의 긍정적인 답변과, 평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 그것이 교육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인증 기준 자체가 실제적 시대적 요구와 부합되는지에 관한 의문 등의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5. 학생들의 실제적인 성장에 관한 의견

학생들의 실제적인 성장에 관해 16 문항의 질문이 주어졌으며 전체적으로 본다면 6 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4.05(표준편차 0.94)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문항별로 본다면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목적이 보건, 의료 및 복지 증진임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평균 4.58(표준편차 1.09)를 받았고, ‘졸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기성과를 실제적으로 잘 구축하여 운영하느냐’는 질문은 평균 4.37(표준편차 0.87)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았던 항목은 ‘기초-임상-의료인문 과목이 긴밀하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평균 3.74(표준편차 0.96)를, ‘평가인증으로 평가방법에 있어 학습효율을 높이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평균 3.74(표준편차 1.25)로 응답 받았다.

그 외에 평가 인증을 통해 D 대학교 한의과대학이 갖는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14 명(34%)가 한의학교육 자체 점검으로 부족했던 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였고, 13 명(32%)가 한의학교육에 대한 한의과대학 내부 구성원의 관심 증가를 꼽았다.

6. 자체평가위원 위촉, 구성, 활동에 대한 의견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다시 수락할지에 관한 질문에 42%가 긍정, 32%가 부정에 답하였다. 긍정으로 답한 이유는 대학발전에 대한 열망(42%), 자

Table 4. Perception of the Suitability of Accreditation Standards for Educational Settings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Do You Think D Korean Medicine University Effectively Reflects Contemporary Needs in the Educational Field According to Accreditation Standards?	0 (0%)	0 (0%)	2 (13%)	5 (33%)	8 (53%)	0 (0%)

Table 5. Perception of Provided Rewards and Support.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Is the Support and Reinforcement Provided to Self-Evaluation Committee Members by D Korean Medicine University Sufficient?	4 (21%)	5 (26%)	6 (32%)	2 (11%)	2 (11%)	0 (0%)

체평가의 중요성 인지(42%)를 꼽았으며, 부정으로 답한 이유는 시간부족(63%)이 가장 많았다.

자체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보상과 지원은 충분하냐는 질문에 6 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2.63(표준편차 1.22)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Table 5). 제공되기를 바라는 보상 및 지원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업적 평가점수가 43%로 가장 많았고, 금전적 보상 28%, 수업·진료 시간 조정 등의 행정적 지원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평가인증 인력의 직무에 대한 인식으로 한의과대학 및 병원 협조 정도는 6 점 리커트 척도 평균 3.61(표준편차 1.21)로 다소 부정적으로, 자체평가위원 직무의 난이도는 평균 4.28(표준편차 1.10)로 다소 어렵다로, 자체평가위원 직무의 작업량은 평균 4.33(표준편차 1.05)으로 다소 많다는 평가였다(Table 6)

7. 만족도

자체평가위원으로서 만족도는 6 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3.31(표준편차 1.26)로 나왔으며 다소 부정적이었다.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2.89(표준편차 1.37)로 좀 더 부정적이었고, 한의학교육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94(표준편차 0.83)로 보통 정도로 평가되었다(Table 7).

기타 의견으로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수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인증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학생들의 한의사로서의 진료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8. 시사점

전반적으로 D 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평가인증의 필

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평가 방법이나 난이도, 작업량, 요구 사항, 효용성, 보상과 지원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다시 자체평가위원을 수락할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의견이 42%라는 것과 그 이유가 본인 이 속한 한의과 대학의 발전에 대한 열정과 자체평가의 중요성 인지라는 것은 불만족에 대한 해결책이 잘 마련되었을 때, 향후 교육의 질향상에 이러한 긍정적 교수 의지가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해결책을 위한 요구로는 평가 내용의 간소화, 기준에 대한 정확한 교육, 교수 전체의 관심과 노력, 보고서 작성의 부담 감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도입,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평가 준비과정의 구체적인 설계와 답문을 통한 뚜렷한 목표 지향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겠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D 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진행된 2024 학년도 KAS2022 평가인증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을 고찰하고자 했다. 한의학교육에서의 평가인증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의 한의학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2 주기 평가인증 부서는 역량 중심의 커리큘럼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고, KAS2022에서는 2 주기에 설계한 계획 대해 교육현장에서의 실현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임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Table 6. Perception of Job Difficulty.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and Hospitals	1 (6%)	2 (11%)	5 (28%)	6 (33%)	3 (17%)	1 (6%)
Difficulty Level of Duties as a Self-Evaluation Committee Member	0 (0%)	1 (5%)	3 (16%)	8 (42%)	4 (21%)	3 (16%)

Table 7. Satisfaction.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Satisfaction as a Self-Evaluation Committee Member	1 (5%)	4 (21%)	7 (37%)	3 (16%)	3 (16%)	1 (5%)
Overall Satisfaction with Accreditation Evaluation for Korean Medicine Education	4 (21%)	4 (21%)	4 (21%)	4 (21%)	3 (16%)	0 (0%)
Overall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0 (0%)	1 (5%)	4 (21%)	9 (47%)	5 (26%)	0 (0%)

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D 대학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실제 평가과정에서의 난이도, 요구되는 작업량, 보상 부족, 그리고 평가인증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교수들은 평가인증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페이퍼 작업에서 번아웃을 경험하였고, 중복되게 기재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의학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질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수들은 평가인증이 실제 교육과정의 개선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과별 모임 등 상시적 회의를 통해 구성원 간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실제 수업 성과-과정성과-시기성과-졸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D 한의과대학에서는 향후 평가인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의학교육 질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교수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수들이 평가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한의학평가원에 자체평가위원들의 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녹화된 온라인 교육(홈페이지 게시) 등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힘들 경우 의학교육학 교실 교수 자체 강의 또는 외부 교육학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인증 과정에서 교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자료의 방식과 양을 영역별로 논의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더 개선되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자체평가위원의 선별과 운영 프로세스가 연계성을

갖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 보직단 교수 중심에서 더욱 확장하여 교육에 관심있는 교수들 주축으로 한 위원회 구성에 더 신경을 써서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교육평가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인증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졸업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평가방법을 실제 임상 현장과 긴밀하게 잘 짜여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교수들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평가인증 과정에 대한 참여 동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임상-의료인문학 교수들 간 수업성과-시기성과 통합 주제로 상시적 담론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수 간 논의한 내용이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지표화 할 수 있는 연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한의원 및 한의학전문기관과 MOU 등의 확충 및 운영은 학생들의 진로역량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의과대학 병원과의 협력을 더욱 키워 임상 교수 중 교육역량이 뛰어나거나 관심을 가지는 교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대의 지원 역시 가장 중요한 인적, 행정적 자원이므로 우호적인 관계 안에서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학교육의 투자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연구-봉사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선순환적인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은 단순한 평가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전과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일개 대학의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인증평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라, 향후 관련 대학본부 직원, 한의과대학 행정직원 및 조교, 일반교수, 학생, 학부모 등으로 설문 범위를 넓히고, 필요할 경우 질적연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2 개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조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객관적으로 한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후속 연구는 실현 가능한 교육 로드맵을 제시하여 인증 평가가 학생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체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수 전문성과 한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24 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2401700001)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ORCID iD

진명호 <https://orcid.org/0009-0000-4701-8994>

김선경 <https://orcid.org/0000-0003-3431-1109>

김훈 <https://orcid.org/0009-0003-9752-5849>

CRediT Statement

Conceptualization: HK; Methodology: HK,SKK; Resources: SKK, MHJ; Writing-original draft: SKK,

MHJ; Writing-review & editing: HK; Supervision: HK.

Data Availability

The data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vailable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on reasonable request.

References

1. Meng KH. The History and Implications of the Medical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Implementation and Activities in Early Stages. *Korean Med Educ Rev.* 2020;22:1-8. <https://doi.org/10.17496/kmer.2020.22.1.1>
2. Lee YJ, Lee MJ, Ahn JM, Ha CW, Kang YJ, Jung CW, et al. Challeng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the Accreditation Standards of the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2019 (ASK2019) derived through meta-evaluation: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2024;21:1-10. <https://doi.org/10.3352/jeehp.2024.21.8>
3. Kim SK, Lee HW. A Study on the Competency-based Education for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as medical students of Korean Medicine.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23;27:73-84. <https://doi.org/10.25153/spkom.2023.27.2.006>